

[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

## 산업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The Job Stress and Presenteeism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n Workplace in Korea

권민<sup>1</sup>, 김순례<sup>2</sup>

<sup>1</sup>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연구소 연구원, <sup>2</sup>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한국산업간호학회지, 19(2), 159-169, 2010

**목적** : 프리젠티즘이란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나 일시적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생산성의 손실과 근로시간의 손실을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산업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그들이 겪고 있는 건강문제 및 직무손실 정도로서 프리젠티즘을 확인함으로써, 산업간호사의 근무여건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 대상자는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272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을 측정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관한 7개 영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리젠티즘은 건강문제 19 문항, 직무손실 10문항, 지각된 생산성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46.3점이었으며, 직무요구 영역이 53.4점, 조직체계 49.6 점, 직장문화 49.5점, 보상부적절 48.0점 순이었다. 직무스트레스는 20, 30대군, 미혼군, 비운동군, 경력이 적은 군, 제조업, 비정규직 및 연봉이 낮은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최근 1개월 이내에 경험한 건강문제는 ‘어깨, 등, 허리, 목의 통증’이 가장 많았고, 전체 직무손실정도는 100점 만점에 36.2점, 지각된 생산성정도는 100점 만점에 74.1점이었다. 직무손실 정도는 20대군, 미혼군, 경력이 적은군 및 평균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인 군에서 높았고, 지각된 생산성은 음주군, 비운동군, 경력이 적은 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결론** : 산업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 영역 중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직장문화의 하위요인에서 평균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연령군, 경력이 1-3년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손실 및 지각된 생산성의 프리젠티즘이 높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